

조 왈렌지나 여사

20

조 왈렌지나 여사는 1917년 4월 10일에 원릉 병감 연해쿠 니콜스크-무츠키시에서 탄생하시었다. 고향도시에서 사범전문학교를 1937년에 졸업하신 이후 한인강제이쿠 카라흐 공화국 코슬을다시에서 1942년에 국립사범전문대학 들어 어문학부를 졸업하시고 그해부터 1947년까지 코슬을다시 고령에서 어문학 교원 일을 하시었다.

조 왈렌지나 여사는 1948년에 1년간 특별교원 강습을 졸업하신 다음 조선민주공화국 평양에 파견되었다.

1950년에 동족상잔이 시작되자 전쟁초시기에 유엔군의 로영양에 의한 포박에 의 다리를 부상 당하고 후방가족들과 함께 중국 함빈시에 투항되어 전쟁 후 1년간 거기에서 쉬도록 받고 중학교 등에서 들어 어문학 교원 일을 하시었다.

조 왈렌지나 여사는 1953년에 걸려되다 다시 평양에 돌아와 고령 들어 어문학 교원 일을 하시었다.

조 왈렌지나 여사는 1960년에 쓰련으로 귀환하여 카라흐 공화국 알라다라시 불구라 고령에서 어문학 교원으로 1972년까지 일하시고, 1972년에 사회보장 연구생활에 들어가시었다.

2000년 2월 11일. 라뉴켄에서.